

## 홉스, 여성, 계약

— 사회계약론에 여성이 있는가?\*

민은경\*\*

### [초 록]

이 논문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어 온 여성주의 비평을 참조하면서 여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홉스의 저작을 꼼꼼하게 다시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홉스의 정치사상에는 페미니즘이 활용할 만한 요소가 꽤 많다. 홉스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고 보았고 가부장적 가족을 전제하지 않았다. 자연상태에서 아이에 대한 지배권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족 관계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자연상태에서 남성과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여성이 왜 국가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할까? 홉스는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있는가? 이 논문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여성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홉스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3461).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주제어: 홉스, 사회계약, 성차, 젠더, 자연상태, 가족, 국가, 페미니즘  
Thomas Hobbes, Social Contract, Sexual Difference, Gender, State of Nature, Family, State, Feminism

정치사상이 안고 있는 한계와 약점을 진단한다.

## 1. 여성주의 시각에서 홉스 다시 읽기

이 글에서 던지는 ‘사회계약론에 여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성주의 문학비평가 메리 자코부스(Mary Jacobus)의 에세이 「이 텍스트에 여성이 있는가?」(Is There a Woman in This Text?)를 염두에 둔 질문이다.<sup>1)</sup> 서양 정치사상 연구에서 여성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1970년대 말부터 영미권 페미니스트들이 젠더를 중심으로 고전 텍스트를 다시 읽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특히 자유주의(liberalism) 정치철학 전통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가에 집중하게 되는데, 홉스에 대한 재검토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자유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은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개진된다. 1) 사회계약론의 모순 2) 공적-사적영역의 분리(public-private separation)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젠더담론으로서 자유주의의가 안고

---

1) Mary Jacobus (1986), “Is There a Woman in This Text?”, *Reading Woman: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83-109. 이 에세이에서 자코부스는 영미권 페미니즘과 프랑스 페미니즘을 비교분석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2) 홉스를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선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홉스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은 대체로 맥피어슨(C. B. Macpherson)의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의 논의를 이어받아 홉스의 개인주의가 소유와 시장 중심의 서양 자유주의 전통의 근간을 이룬다고 본다. 맥피어슨의 맑시스트적 접근을 강력하게 비판한 학파로 포콕(J. G. A. Pocock)과 스킨너(Quentin Skinner)로 대표되는 케임브리지 학파(Cambridge School)가 있다. 특히 스킨너는 맥피어슨의 비역사성을 비판한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Ian McCay (2014). “A Half-Centu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C. B. Macpherson and the Twenty-First-Century Prospects of Liberalism”, *Journal of the Canadian Historical Association* 25, *Erudit*, pp. 319-320 참조.

있는 문제 4) 권력 구조에 대한 자유주의의 상대적 무관심 5) 계약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돌봄(care)의 윤리학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sup>3)</sup> 그동안 홉스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비판은 홉스의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인 계약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 글의 목적은 여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홉스를 꼼꼼하게 다시 읽는데 있다. 홉스의 기본 전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본고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홉스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을 참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비판사를 촘촘히 수렴, 조명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을 요하며, 특히 자유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반론과 반박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연구과제다. 이 글의 초점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임을 미리 밝힌다. 다만, 홉스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이 국내에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홉스에 대해 이루어진 페미니스트 비판을 간단히 소개, 정리하면서 글을 시작한다.<sup>4)</sup>

홉스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뉜다.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홉스를 다룬 진영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 1970~80년대에 나온 홉스에 대한 페미니스트

3) Ruth Abbey (2014), *The Return of Feminist Liberalism*,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p. 10 참조.

4) 홉스와 젠더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이 글에서 다루는 페미니스트 이론가를 언급한 연구로 김희강(2018), 전해정(2013), 황정미(2002)를 참조하였다. 이 중 홉스에 대한 본격 연구는 없다. 해외 홉스 연구에서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계속 주변화되어왔다. 오드죽(Eva Odzuck)이 지적하듯이, 1996년에 출간된 *Cambridge Companion to Hobbes* (ed. by Tim Sorell)이나 2007년에 나온 *Cambridge Companion to Hobbes's Leviathan* (ed. by Patricia Springborg)에 여성이나 가족에 대한 연구는 없다. 반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주의적 연구가 주요 연구서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13년에 나온 *Bloomsbury Companion to Hobbes* (ed. by S. A. Lloyd), 2016년에 나온 *Oxford Handbook of Hobbes* (ed. by A. P. Martinich and Kinch Hoekstra), 그리고 아주 최근에 출간된 2019년의 *Interpreting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ed. by S. A. Lloyd)는 페미니스트 연구를 반영한다. Odzuck (2019) 참조.

트 비평은 주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로 페이트먼(Carole Pateman)과 허시만(Nancy Hirschmann)을 꼽을 수 있다. 홉스와 관련해서 페이트먼이 내놓은 가장 중요한 연구서는 1988년에 나온 『성적 계약』(*The Sexual Contract*)이다. 이 책에서 페이트먼은 여성이 사회계약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강한 주장을 펼친다. 여성은 사회계약에 우선하는 성적 계약에 의해 지배당하며 계약이란 불평등한 정치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것이 페이트먼의 핵심 주장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는 계약 개념 자체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홉스 해석에 있어 페이트먼과 차이를 보이는 허시만도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같은 진영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무를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Obligation*, 1992)에서 허시만은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를 중심으로 발전한 서양 근대 정치사상에 ‘비자발적 의무’(non-voluntary obligation)에 대한 성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진영의 대표적 연구자로 오킨(Susan Moller Okin), 햄프턴(Jean Hampton), 너스바움(Martha Nussbaum)을 꼽을 수 있다.<sup>6)</sup> 오킨은 『서양 정치사상에서의 여성』(*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1979)이라는 선구적 연구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밀 등의 주요 정치사상가가 여성을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이해하고 가족이라는 범주에 국한해서 분석한다고 주장한다. 후속 저작 『정의, 젠더, 가족』(*Justice, Gender, Family*, 1989)에서는 롤스(John Rawls), 노직(Robert Nozick),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산델(Michael Sandel), 왈저(Michael Walzer) 등 현대의 대표적 정치철학자들을 논하면서 이들 역시 여성에 대해 여전히 기본적으로 무관심하며 성차별적 사고를 보인다고

5) 허시만처럼 계약이란 개념 자체를 문제 삼는 여성주의 학자로 헬드(Virginia Held)를 꼽을 수 있다.

6) 자유주의 진영의 페미니스트에 대한 논의는 Abbey의 같은 책 참조.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을 폐기하자는 페이트먼의 주장에 맞서 오킨은 ‘계약 없는 사회가 과연 살 만한 사회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sup>7)</sup> 『홉스와 사회계약 전통』(*Hobbes and the Social Contract Tradition*, 1986)의 저자 햄프턴 역시 사회계약론이 페미니스트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홉스가 인간을 도구적 존재로 이해한다는 이유에서 비판적이다. 햄프턴은 개인의 이해를 최대한 추구하는 홉스식 계약이 아닌, 윤리성에 대한 사고실험의 일환으로서의 칸트식 계약을 옹호한다. 자유주의 진영에서 요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너스바움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로 사회계약론을 꼽는다. 너스바움은 사회계약론을 계승, 수정한 주요 철학자인 롤스(Rawls)의 사회정의론을 부분 수정하는 저작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 외 홉스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있는데 디 스테파노(Christine Di Stefano)와 쿨(Diana Coole)이 여기에 해당된다.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홉스를 접근하는 여성주의 철학자로는 스리달(Susanne Sreedhar)이 있다.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진영에서 홉스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이 글에서는 페이트먼과 허시만의 논평을 주로 참조하면서 필요에 따라 위에 언급된 비평가들을 소개, 인용하기로 한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자유주의 진영의 학자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본격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이 글은 홉스의 저작에서 등장하는 ‘모권’(mother-right), 가족의 정의, 여성과 남성 간의 계약, 국가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집중분석할 것이다.

7) “Pateman gives up too easily on the potential uses of contract for feminism”; “We must, before eschewing contracts, surely, consider what a society without them would be like.” Okin (1990), “Feminism, the Individual, and Contract Theory”, *Ethics* 10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666, p. 668.

## 2. 자연상태의 지배자, 어머니

잘 알려졌듯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a warre, as is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이라는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가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치이론이다.<sup>8)</sup>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자연적 개인은 “자기보존”(his own conservation, *Leviathan*, p. 88)을 위해 운동할 뿐이며 모든 인간관계는 생명보존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홉스가 자연상태를 이렇게 암울하게 그린 이유는 고전적 국가론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의 전통적 정치이론이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본질이 공동체적 질서를 지향한다고 본 반면, 홉스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로 이해했다. 국가라는 정치질서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라는 극도의 공포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요지다.<sup>9)</sup>

여기서 우리는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의 개인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가족이 존재할까? 자연상태의 성교와 생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교와 생식도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까?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자기보존을 위한 수단인가? 다소

---

8) Thomas Hobbes ([1651] 1996), *Leviathan* (ed. by Richard Tuc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8.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 *Leviathan*으로 표기하고 본문 안에 쪽수를 기재한다. 이 글의 홉스 번역은 진석용이 옮긴 『리바이어던』을 참조한 새로운 원문 번역이라는 점을 밝힌다.

9) 홉스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 요약은 수정될 수 있다. 케임브리지 학파는 홉스의 자연상태 이론을 17세기 영국내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홉스의 자연상태를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논쟁과 연결해서 살핀 연구로 Hoekstra (2004), Skinner (2018) 참조. 홉스의 자연상태가 전적으로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으로는 Hoekstra (2007),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의 친연성에 대한 연구로 Brett (2010) 참조.

영동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홉스가 이론화한 자연상태의 개인이 욕망하고 운동하는 **몸**을 가진, 대단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며 걱정적인 개인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가족 연대가 보통 성교, 생식, 양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한 연대를 공동체 질서의 근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홉스가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홉스는 성차(sexual difference), 모권, 부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홉스에 의하면 국가와 가족의 관계는 무엇인가?

홉스의 자연상태는 여러 면에서 모순적이지만 여성과 관련해서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디 스테파노(Christine Di Stefano)는 「정치이론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로서의 남성성」(Masculinity as Ideology in Political Theory)이라는 1983년 논문에서 홉스의 정치사상의 근간이 되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원자화된(atomistic), 자기중심적이며 ‘남성적’ 주체이며, 이러한 남성적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리바이어던은 기본적으로 “고아들의 정치체”(a body politic of orphans)라고 주장했다.<sup>10)</sup> 이는 홉스의 자연상태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비판으로, 홉스의 정치사상이 생식과 양육과 같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부정한다는 의미다. 홉스가 개인을 일종의 “욕망하는 기계”(desiring machine)로 그리면서도 철저하게 추상화하는 이유를 디 스테파노는 홉스의 “어머니에 대한 거부”(the denial of the mother)에서 찾는다.<sup>11)</sup> 결론적으로, 여성과 모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여성은 없으며, 여성과 모성을 배제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결국 가부장적 국가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디 스테파노의 주장은 자연상태의 어머니에 대한 홉스의 기술을 전적으로 간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페이트먼은 디 스테파노를

10) Christine Di Stefano (1983), “Masculinity as Ideology in Political Theory: Hobbesian Man Considered”,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Pergamon Press, p. 639.

11) Ibid., p. 637, p. 642.

비판하면서 홉스에서 “어머니에 대한 거부”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정치사상에서 여성들은 오히려 “성좌에 오르게”(enthroned) 된다고 반박한다. 그 이유는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상태에서의 정치적 권리는 모권(母權)”(political right in the natural condition is mother-right)이기 때문이다.<sup>12)</sup> 디 스테파노와 페이트먼의 논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권에 대한 홉스의 주장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홉스는 그의 저작 『법의 요소』(*Elements of Law*, 1640), 『시민에 관하여』(*De Cive*, 1642)와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지속적으로 모권을 다루는데, 우선 『시민에 관하여』의 논의를 살펴보자. 여기서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출산하는 모든 여성은 어머니이자 지배자가 된다”고 말한다(in the state of nature every woman who gives birth becomes both a *mother and a Mistress [Domina]*).<sup>13)</sup> 그 이유는 “신생아가 그 누구보다 어머니의 손 안에 먼저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 어머니의 권리로 그를 보살피든지 버릴 수 있다”(it is obvious that a new-born child is in the power of his mother before anyone else, so that she can raise him or expose him at her own discretion and by her own right, *De Cive*, p. 108)는 데 있다. 즉, 자연상태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불확실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출산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는 바, 아이에 대한 소유권과 양육권은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어머니가 갖는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 권리란 아이의 생명을 어머니가 보장해주고 양육을 해줄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12) Carole Pateman (1991), “‘God Hath Ordained to Man a Helper’: Hobbes, Patriarchy and Conjugal Right”, *Feminist Interpretations and Political Theory* (ed. by Mary Lyndon Shanley and Carole Patema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 54. 『페미니즘 정치사상사』, 이남석·이현애 역, 서울: 이후, pp. 93-122 참조.

13) Thomas Hobbes ([1642] 1997), *On the Citizen* (ed. by Richard Tuck and Michael Silverthor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08.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De Cive*라고 표기하고 본문 안에 쪽수를 기재한다. 필자 번역.

상태, 곧 전쟁상태에서 이 권리는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의 이러한 정의가 유의미한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적 지배권”(natural dominion)이라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가 그가 낳고 기른 아이에 대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이것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지배권이다. 즉, 자연상태에서 남성은 다른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과 아이에 대해서도 자연적 지배권이 없다.

그렇다면 홉스는 왜 이런 방식으로 자연상태에서의 모권을 강조했는지 반문하게 된다. 특기할 점은 홉스의 모권이 모성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시민에 관하여』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해 그 어떠한 본능적인 모성이나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 홉스는 어머니가 애뜻한 감정을 가지고 아이를 본능적으로 거두고 키운다고 간주하지 않고, 아이가 커서 자신의 적이 되지 않으리라는 전제하에, 즉, 아이가 자신에게 복종하리라는 전제하에서만 아이를 보살핀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철저한 권력관계이다. 전쟁상태나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에서 어머니는 아이를 아군으로 삼기 위해서 양육하게 되며, 어머니의 손에 생존이 달려있는 아이는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한다. 물론 아이가 성장해서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불확실하다. 아군이 될 수도, 적군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역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는 이해하에 아이를 살리는 것이며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지배는 아이를 보호하고 살릴 수 있을 때 성립한다.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어머니는 당연히 지배자가 될 수 없다.<sup>14)</sup>

14)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4의 자연법(fourth Law of Nature), 報恩(gratitude)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돌봄을 “타인이 사전에 베푼 은혜, 즉, 무상증여”로 (Antecedent Grace; that is to say, Antecedent Free-gift)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어머니의 아이의 관계를 정치적 관계로 보는 『리바이어던』 20장의 논의는 보은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Leviathan, p. 105 참조).

페이트먼은 홉스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자연적 지배는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유일한 계약론자”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자연상태에서는 여성 개인이 남성 개인만큼 자유로우며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5)</sup> 자연상태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시민에 관하여』의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페이트먼의 해석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홉스의 정치사상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함도,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의 당위성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거의 모든 서양 철학자들이 가족을 자연발생적 사회 단위로 설정하고 가족의 유대관계 또는 질서를 기반으로 정치관계를 설명한 반면, 홉스의 정치철학은 자연적 가족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홉스는 정치를 부권과 연결시키는 가부장적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치의 탄생을 이론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홉스의 자연상태는 성차(sexual difference)를 전제하면서도 여성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생식과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역할을 아이에 대한 적극적이며 독보적인 권리와 권력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도 독창적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여성이 누리는 ‘자연적 지배권’은 국가상태에서 박탈되며 자연상태에서 여성이 누리는 평등과 자유는 국가상태에서 급격하게 제한된다. 이 때문에 페이트먼은 홉스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사회계약론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국가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상태에서는 평등했던 어머니가 “시야에서 조용히 사라진다”는(the mother silently fades from sight) 것이다.<sup>16)</sup> 어떻게 사라진다는 말일까? 『성적 계약』에서 페이트먼은 사회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해 성적으로 정복당한다고 주장

15) Pateman (1991), p. 55.

16) Teresa Brennan and Carole Pateman (1979), “‘Mere Auxiliaries to the Commonwealth’: Women and the Origins of Liberalism”, *Political Studies* 27, Blackwell, p. 189.

하는데 타당한 해석일까? 홉스의 모권 논의가 궁극적으로 국가상태에서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설득력 있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여성들이 정복당하고 사회계약에서 배제된다는 페이트먼의 논지는 여러 모로 무리라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 3. 어머니의 양도와 아버지의 왕국

다시 홉스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평등하게 출발하는 여성과 남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불평등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어머니의 지배권이 박탈당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실마리를 그동안 홉스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시민에 관하여』 9장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sup>17)</sup> 9장의 제목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 그리고 아버지의 왕국에 관하여」(On the right of parents over children, and on the Patrimonial Kingdom)이다. 제목에서 금방 드러나듯, 홉스가 모권을 논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옹호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 모권이 어떻게 양도되어 부권에 의해 승계되는가를 논하기 위함이다. 자연상태에서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홉스는 바로 이어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양도된다”고 설명한다(*Dominion passes from the mother to others in various ways*). 중요한 대목이므로 찬찬히 따라 읽기로 한다. 첫째, “어머니가 아이를 유기할 경우(출산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 아이에게 주었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므로, 생명을 선물함으로써 갖게 된, 자신에 대한 아이의 의무가 취소된다”(For the life

17) 이하 *De Cive*, p. 109 인용.

which the *mother* gave him (not by *generation* but by *looking after* him) she takes away by abandoning him; hence the obligation which arose from the gift of life is cancelled by the *abandonment*). 아이에 대한 권리는 그 아이를 거두어 보살피는 자가 갖는다. 둘째, “어머니가 전쟁에서 정복당할 경우, 그를 지배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동시에 지배하게 되고 아이도 여기에 포함된다”(Secondly, if a *mother* has been captured in war, her *offspring* belongs to her captor, because he who has *Dominion over a person* has *Dominion* over everything that is hers; and that includes the *child*). 셋째, “어머니가 한 국가의 시민이 될 경우”(if the *mother* is a citizen of a commonwealth), “그 국가의 주권을 갖는 자”(the holder of sovereign power in that commonwealth)가 어머니의 “주인”(Master)이 되고, “아이에 대한 지배권”(Dominion over her child)을 갖는다. 넷째, “한 여성이 한 남성과 삶을 같이 하기 위해 남성이 자신에 대해 권력을 갖는 조건으로 그 남성의 손에 자기 자신을 넘길 경우”(if a *woman* gives herself to a man to share her life with him, on the terms that power be in the hands of the *man*),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남성의 소유가 된다.

여기서 홉스가 자연상태와 국가상태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권의 양도를 논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자연상태에서 혹은 국가상태에서 아이를 양도하게 된다. 홉스가 그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연상태에서의 양도를 설명하는 반면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체로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의 양도를 설명하는 듯하다. 자연상태에서 여성이(설명되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아이를 버리게 되면 아이에 대한 지배권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살리는 자가 갖게 된다(이는 물론 다른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있다). 혹은, 여성이 전쟁에서 남성에게 정복당함으로써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놓칠 수도 있다. 이 두 시나리오가 강압적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면, 세 번

째와 네 번째 시나리오에 여성의 자발적 복종을 그린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홉스에 의하면, 아이를 가진 여성이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아이에 대한 지배권에 있어서는 전쟁을 통해 정복당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전쟁을 통해서나 국가를 통해서나 박탈되기 마련이라는 말인가? 국가는 여성들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가? 국가라는 틀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여성들이 자연 상태에서 불안정한 형태로나마 누리던 자식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여성들이 국가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계약을 묘사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 여성이 “한 남성과 삶을 같이 하고자” 자신에 대한 통치권을 그 남성에게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에 대한 통치권까지 그에게 넘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홉스의 목적은 이러한 어머니의 권리 양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가 양도 가능해지는 **논리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홉스의 문장을 자세히 보면 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다면, **만약** 어머니가 전쟁에서 정복당한다면, **만약** 어머니가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만약** 한 여성이 남성에게 모든 권력(power)을 넘기는 조건으로 같이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렇다면 어머니의 권리 양도가 가능해진다는 식이다(필자 강조).

그러나 위 가정문을 열거한 후 홉스가 하는 말을 살펴보자. “국가상태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같이 살겠다고 계약을 하면, 둘의 결합에 의해 태어나는 자식은 아버지에게 귀속된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경우 가족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통치권을 남성이 갖는다”는 것이 홉스의 결론이다(in a commonwealth, if a *man* and a *woman* make a contract to live together, any children born belong to the *father*, because in **all commonwealths**, because they are established by the *Fathers* not the *mothers* of the *family*, the power of domestic gov-

ernment belongs to the man, *De Cive*, p. 110, 필자 강조). 홉스는 국가의 시민법에 따라 체결된 이러한 계약을 결혼이라고 명명한다고 덧붙인다. 국가의 주권자가 원칙적으로 남성이어야 할 필연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홉스는 모든 국가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 의해 설립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홉스가 모권을 분석하는 의도는 모권 자체에 있다기보다 모권이 부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권에 대한 논의만 가지고 홉스의 젠더정치(gender politics)를 평가하면 안 될 일이다.

자연상태에서 자식에 대해 유일하고 근본적인 권리를 가진 여성이 자기보존을 위해 국가상태에 돌입하면서 자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이것이 이성적인 선택일까? 꼭 그래야만 할까? 페이트먼에 의하면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도(세 번째 시나리오) 가족도(네 번째 시나리오)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이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계약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남성에게 줄 이유가 없다. “만약 자유롭고 평등한 여성들이 최초의 사회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여성을 남성의 ‘부인’으로 전락시켜 영구적으로 예속되도록 하는 시민법을 제정하는데 동의할 추후의 이유가 없었을 것”(If free and equal women could enter the original contract there is no reason whatsoever why they would agree to create a civil law that secures their permanent subjection as wives)이다.<sup>18)</sup> 한 마디로, 홉스가 말하는 방식의 사회계약을 통해 여성에게 불평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동의할 이유도, 불평등한 결혼계약을 체결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왜, 어떻게 국가의 시민이 되어 불평등한 결혼계약을 맺고 아이에 대한 지배권도 없이 그저 한 남성의 부인으로 살면서 온갖 불평등과 불이익을 감내하게 된 것일

18) Pateman (1991), p. 67.

가? 페이트먼에 의하면 그것은 여성이 국가를 만드는 최초의 사회계약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사회계약이든 결혼계약이든 자신에게 그토록 불리한 계약에 동의했을 리 없다. 따라서, “최초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자연 상태의 **모든** 여성이 남성에 의해 정복되어 종이 된다”는 전제하에(by the time the original contract is entered into, *all the women in the natural condition have been conquered by men and become servants*) 홉스의 내러티브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sup>19)</sup> 이러한 이론적 전제 없이는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 살던 여성들이 어떻게 불평등한 시민 사회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받아온 차별을 고려했을 때, 사회계약론의 보편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페이트먼의 지적은 젠더담론으로서 사회계약론이 가진 한계와 약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1980년대에 큰 주목을 받았다.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국가라는 정치체의 필요성, 당위성, 우월성, 보편성이 의심스러우며, 홉스가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 양도에 나서게 되는지 설명한 것이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페이트먼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사회계약을 맺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정복당했다고 봐야 한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위에서 소개한 『시민에 관하여』의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페이트먼이 인정하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오직 두 번째 전쟁 시나리오다. 결국 사회계약이라는 홉스의 핵심적 개념을 무시하는 셈이다. 게다가 페이트먼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보는데, “여성이 어머니와 지배자가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몰락을 뜻한다”는(paradoxically, for a woman to become a mother and a lord is her downfall) 그의 주장은<sup>20)</sup>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모유

19) Pateman (1991), pp. 64-65.

20) Pateman (1991), p. 65.

수유와 같은 경험을 제약, 심지어 장애(disability)로 해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21)</sup>

이러한 페이트먼의 해석에 대해 여러 비판이 그동안 제기되었다. 허시만은 페이트먼의 나약한 어머니상이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여성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임신이나 출산 중인 여성을 적극 돕고 보호한 역사적 사례로 고대 아마존 사회를 꼽은 홉스가 오히려 강인한 여성상을 인정한 반면, 페이트먼은 여성을 지나치게 약한 존재로 그린다는 비판이다.<sup>22)</sup> 존스(Kathleen Jones)의 문제제기는 더 강력하다. 존스에 의하면, 페이트먼은 자연상태의 “여성을 남성이 가한 성폭력의 불운한 피해자로 재현하는 경향”(tendency to represent women as the hapless victims of male sexual exploitation)을 보이며 여성성을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생산하여 양육하는 몸과 동일시한다.<sup>23)</sup> 홉스의 철학에 내재된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페미니스트 페이트먼이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오킨의 문제제기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페이트먼은 사회계약 이전에 남성들이 여성들을 정복해서 나누어 갖는 성적 계약(sexual contract)을 서로 맺는다고 보고, 이로써 성교권(sex-right)이 남성에게 한정된다고 주장하는데, 오킨에 의하면 페이트먼의 내러티브는 남녀 간의 성교를 기본적으로 강간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sup>24)</sup> 남성들이 이렇게 서로 담합해서 여성들을 나눠가 지기로 할 때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에 지쳐 반항도 못했다는 것인가? 이

21) 장애(disability)라는 표현은 다음 논문에 등장한다. Nancy J. Hirschmann (2016), “Hobbes on the Family”, *Oxford Handbook of Hobbes* (ed. by A. P. Martinich and Kinch Hoekst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56.

22) Hirschmann (2016), p. 257.

23) Kathleen Jones (1993), *Compassionate Authority: Democracy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New York: Routledge, p. 44.

24) Susan Moller Okin (1990), “Feminist, the Individual, and Contract Theory”, *Ethics* 10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660.

글은 페이트먼이 제기한 성적 계약이란 개념이 홉스에 대한 해석으로서 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에 대한 페이트먼의 다소 거친 여성주의적 문제제기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연상태 와 국가상태를 사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 4. 사라지는 여성: 가족과 국가의 관계

이 글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 중 하나는 ‘홉스에게 가족과 국가의 관계란 무엇인가’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홉스는 가부장적 가족을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단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의 근간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질서를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빚대 설명해오던 유구한 서양 전통의 맥을 끊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자연상태에서의 가족은 한 편으로는 작고 힘없는,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단위로 묘사된다. 가령, 『리바이어던』 13장에서 홉스는 자연상태의 한 예로 아메리카(America)를 언급하면서 그곳의 “야만족”(savage people)이 “작은 가족”(small Families)을 제외하면 정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산다고 말한다. “작은 가족”은 “자연적 성욕”(naturall lust)에 기반한 “화합”(concord)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화합을 통해 사람들이 뭉친다고 해도 자연상태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홉스의 포인트다(For the savage people in many places of America, except the government of small Families, the concord whereof dependeth on naturall lust, have no government at all, *Leviathan*, p. 89).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홉스는 국가의 축소 형태로서의 가족을 이론화하

25) 홉스가 처음으로 이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홉스 이전의 자연법 전통 — 가령, 그로티우스(Hugo Grotius) — 에서 국가질서는 이미 가부장적 가족과 무관하게 이론화된다. 자연법 전통에 대해서는 Tuck (1979), Skinner (1979), Brett (2011) 참조.

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갖는 친연성과 차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홉스의 자연상태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질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성교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홉스의 자유로운 자연상태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러 명과 제약 없이 성교할 수 있다. 『시민에 관하여』에서 홉스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자연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네 것’이 없다”(in the natural state ... nothing was another’s (because nature gave all things to all men), *De Cive*, p. 158).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는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성관계가 합법적이다”(all things were in common, for which reason also all sexual unions were licit, *De Cive*, p. 158, 필자 강조).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이 충격적 발언으로부터 수잔 스리달(Susanne Sreedhar)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급진적 이론”(a radical theory of sexuality)을 도출해낸다. 홉스가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허용적인(permissive) 입장을 견지했으며 심지어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스리달도 인정하듯 과도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홉스는 남성들이 여성을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가령, 『리바이어던』 13장에서 홉스는 남성들이 “다른 남성의 몸, 부인, 자식과 가족의 주인이 되고자 폭력을 휘두른다”(use Violence, to make themselves Masters of other mens persons, wives, children, and cattell, *Leviathan*, p. 88, 필자 강조)고 말한다. 홉스의 자연상태는 그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인 색채를 강하게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상태에 대한 홉스의 주장이 페미니스트에게 영감이 될 수 있는

26) Susanne Sreedhar (2012), “Towards a Hobbesian Theory of Sexuality”, *Feminist Interpretations of Thomas Hobbes* (ed. by Nancy J. Hirschmann and Joanne H. Wright),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 266.

이유는 홉스만큼 가족과 부권을 통괄하게 해체한 사상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sup>27)</sup>

그렇다면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남녀 간의 그 어떠한 협력이나 지속적 관계가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도 남녀 간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결혼과 관련한 법도,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한 법도 없고 오로지 자연법, 그리고 성에 대한 혹은 아이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끌림만 존재하는 자연상태”(in the state of meer Nature; where there are supposed no lawes of Matrimony; no lawe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but the Law of Nature, and the naturall **inclination** of the Sexes one to another, and to their children, *Leviathan*, p. 140, 필자 강조)에서도 여러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sup>28)</sup> 여성과 남성의 계약에 대한 『법의 요소』의 기술이 워낙 상세해서 여기에 자세히 소개한다. 『법의 요소』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여성은 남성과 한동안 같이 살기로 계약할 수도 있고(covenants of cohabitation) 성관계만 갖기로 계약할 수도 있다(covenants of copulation). 아마존 여성들은 인근의 남성들과 성계

---

27) 『리바이어던』 30장을 보면 국가상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이 등장한다. “인간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지(四肢), 그 다음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부부의 정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富)와 삶의 수단이다”(Of things held in propriety, those that are dearest to a man are his own life, and limbs; and in the next degree, (in most men,) those that concern conjugall affection; and after them riches and means of living, *Leviathan*, p. 236). 여기서 ‘conjugall affection’이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부부의 정’을 뜻하지만, 이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이성 또는 성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으로 읽을 수 있겠다.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유(propriety/property)’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의미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상태에서만 이러한 행복감이 가능해진다는 논지다. 이 대목에서는 홉스가 인간을 완전히 비사회적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은 듯하며 남녀 간의 애정을 인정하고 있다.

28) “Inclination”을 경향성이라는 철학용어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보다 자연스럽게 이끌림이라고 번역했다.

약을 맺고 딸이 태어나면 같이 데리고 살되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이들은 성교계약(covenant of copulation)만 택한 셈이다. 남성과 여성이 동거할 때, 모든 것을 공유하는(society of all things) 조건으로 혹은 침대만 공유하는(society of bed only) 조건을 내걸 수 있다.<sup>29)</sup> 이때 동침, 동거의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아이는 어머니가 갖는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각자의 길을 갈 경우 복잡할 것이 없다. 아이는 여성이 갖고 여성과 남성 간의 권력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society of all things) 조건으로 오랜 기간 동침, 동거하기로 합의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즉, 가족을 이룰 경우, 둘 중 한 명이 통치(govern)해야 한다고 홉스는 못 박는다. 둘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두 명의 부모가 있지만 오직 한 명의 주인(Master)을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두 명의 주인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for no man can obey two Masters, *Leviathan*, p. 139). 주인이 둘이면 힘겨루기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분쟁과 싸움이 뒤따른다.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지배해야 한다고 홉스는 말한다. 이 사람이 아버지일 필연성은 없지만 개연성이 크다는 것인데, 『법의 요소』를 보면 홉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이 남성에게 통치권을 양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은 아이에 대한 유일한 권리와 지배권 또한 갖게 된다”고 말한다(And therefore the man, to whom **for the most part** the woman yieldeth the government, hath **for the most part** also the sole right and dominion over the children, *Elements of Law*, p. 132, 필자 강

29) Thomas Hobbes ([1640] 1999), *The Elements of Law, Natural and Politic* (ed. by J. C. A. Gask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31.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Elements of Law*라고 표기하고 본문 안에 쪽수를 기재한다.

조). 이에 대한 홉스의 설명은 여러 저작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주권의 계승문제를 다룬 『리바이어던』 19장을 보면 군주가 자신을 승계할 사람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성보다 남성이 노동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을 하기에 **자연적으로** 더 적합”(because men, are naturally fitter than women, for actions of labour and danger, *Leviathan*, p. 137, 필자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되어있다. 『법의 요소』에서도 홉스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지혜와 용기를 **대체로** 더 많이 갖췄다”고(generally are endowed with greater parts of wisdom and courage … than women are, *Elements of Law*, p. 134, 필자 강조) 주장한다. 홉스는 “여성도 통치할 수 있고,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여성들이 현명하게 통치를 잘한 기록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만큼 정치에 소질을 보이지 않는다고 둘러댄다(Not but that women may govern, and have in divers ages and places governed wisely, but are not so apt thereto in general as men, *Elements of Law*, p. 134, 필자 강조).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상태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창한 홉스의 숨겨진 가부장적 사고가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비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남성이 “자연적”으로 여성보다 위험한 일을 잘한다는 진술은 아무런 뒷받침 없이 제시되거나, 홉스 자신도 인정하는 바, 역사 속 여왕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되어 남편과 아이, 시민을 모두 지배하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의 사례를 기술한 것일 뿐, 이론적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가족에 대한 홉스의 정의를 문제 삼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여성들이 점차 소외된다고 지적한다. 『법의 요소』에서 홉스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둘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종을 총칭해 가족이라고 부른다”(the whole consisting of the father or mother, or both, and of the children, and of the servants, is called a FAMILY)고 말하며, 이때 “**아버지 또는 가족의 주인**이 이들에 대해 주권자가 되며 나머지는(자녀와 종 모두 마찬가지로) 그

에게 종속된다”고 설명한다(wherewithin **the father or master of the family** is sovereign of the same; and the rest (both children and servants equally) subjects, *Elements of Law*, p. 133, 필자 강조). “아버지 또는 가족의 주인”이란 표현은 가족의 주인이 꼭 아버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에 관하여』와 『리바이어던』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와 힘이 훨씬 강조되며 어머니에 대한 기술은 아예 사라진다. 『시민에 관하여』에서 가족은 “아버지, 자녀와 노예”(The father of the family, the children and the slaves, *De Cive*, p. 112)로 구성되며, 『리바이어던』에서는 “한 남성과 그의 자녀, 혹은 한 남성과 그의 종, 혹은 한 남성과 그의 자녀와 종 모두”로(whether that Family consist of a man and his children; or of a man and his servants; or of a man, and his children, and servants together, *Leviathan*, p. 142) 정의된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허시만은 ‘종’이란 범주에 여성이 포함된다고(it is most likely that women are subsumed under the category ‘servant’) 보아야 여성이 사라지는 이 ‘퍼즐’(puzzle)에 대한 ‘논리적 해법’(logical solution)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시만에 의하면, 로마법에서 가족(*familia*)이라는 용어가 “한 남성에게 귀속된 노예의 총합”(total number of slaves belonging to one man)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홉스가 로마법을 참조하였다는 것이다.<sup>30)</sup> 『리바이어던』에서 홉스가 노예와 종을 구분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홉스에 의하면 정복당한 사람은 노예(slave) 또는 종(servant)이 되는데, 노예의 경우 정복당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정복자와 계속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반면(따라서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주인을 죽이고 도망칠 권리를 가지는 반면), 종은 자신이 정복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복자에게 복종하겠다는 신의계약(covenant)을 맺는다. 종이 주인에 대해

30) Hirschmann (2016), p. 247.

의무를 갖고 주인은 종을 신뢰(trust)함으로써 둘은 계약관계에 들어간다. 이러한 신의계약 없이 종이 될 수 없다는(And after such Covenant make, the Vanquished is a SERVANT, and not before, *Leviathan*, p. 141) 홉스의 설명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 양도를 다루는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관하여”(Of Dominion Paternall, and Despotically)라는 제목의 『리바이어던』 20장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허시만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한다. 문맥상 여기서 종은 어머니인 여성, 여성이 복종하는 이 상황은 자연상태로 읽힌다. 즉, 이 시나리오의 자연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의 종이 됨으로써 가족이 형성되는 한 가지 모형을 제공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홉스는 모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여성이 정복당해 남성에게 아이를 양도하는 시나리오는 이 중 하나일 뿐, 자연상태에서 모든 여성이 종이 된다는 허시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같은 장에서 홉스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가족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 의해 설립되었다”(for the most part Common-wealths have been erected by the Fathers, not by the Mothers of families, *Leviathan*, p. 140, 필자 강조)고 말하지만 이 역시 국가상태나 자연상태의 남녀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뒷받침하는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자연상태의 가족이 꼭 아버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국가 역시 아버지 군주의 지배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홉스의 정치사상에서 가족과 국가는 분리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대부분의 경우 가족을 지배한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군주가 남성일 필요도 없다. 가족과 국가의 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국가가 가족을 닮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국가를 닮았다고 보아야 한다. 성육에 의해 구성된 아메리카의 아주 작은 공동체를 제외하면, 가족은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정치적 단위이고 계약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 20장에서 홉스는 “한 남성과 그의 자녀, 혹은 한 남성과 그의 종, 혹은 한 남성과 그의 자녀와 종 모두”를 가족으로 칭하면서 이렇

게 만들어진 “대가족”(a great Family)이 일종의 “소왕국”(a little Monarchy)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이는 얼핏 보면 가족이 국가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 같아 보일 수 있다. 이 가족이 국가와 비슷한 이유는 “아버지 또는 주인이 가족의 주권자”가 되고(the Father or Master is the Sovereign) 절대적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국가에 주권자가 있듯이 가족에게는 “아버지 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국가를 닮았다. 그러나 홉스가 여기서 이 가족을 국가에 비유하는 이유는 가족(특히 가부장적 가족)이 국가의 역사적 또는 논리적 기원이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버지 또는 주인”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주인을 동일시하기 위함이 아니며 주인이 꼭 아버지일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옳다. 즉, 가족의 주인이 어머니 또는 아이를 갖지 않은 여성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홉스가 여기서 아버지의 권력을 통치자의 권한에 비유하는 까닭은 자연상태의 가족이 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국가는 전쟁을 통해서만 복속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연상태의 가족은 그런 힘을 갖지 못한다”(But yet a Family is not properly a Common-wealth; unless it be of that power ... as not to be subdued without the hazard of war, *Leviathan*, p. 142). 따라서 **가족이 곧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홉스의 핵심 포인트다. 동시에, 홉스의 핵심 주장은 가족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단위가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홉스는 개미와 벌과 같은 “동물들의 화합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화합은 오직 인위적인 신의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the agreement of these creatures is Naturall, that of men, is by Covenant only, which is Artificiall, *Leviathan*, p. 120) 보았다.

이 글은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홉스는 종도 “아버지 또는 주인”과 계약하고 심지어 아이도 부모와 계약한다고 보는데, 『시민에 관하여』와 『리바이어던』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리바이어던』에

서는 아이의 부모에 대한 복종이 “아이의 동의”를(the Childs Consent, *Leviathan*, p. 139) 전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어린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을까? 어린 아이의 동의는 암묵적인 동의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를 두고 하워드 워런더(Howard Warrender)는 아이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이 “무언의 동의”(tacit consent)를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성을 아직 갖추지 않은 아이는 “원래 어리석게 태어난 자”(naturall fooles)나 “정신이상자”(mad-men)와 마찬가지로 “신의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power to make any covenant)을 갖지 못한다는 홉스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Leviathan*, p. 113).<sup>31)</sup> 워런더의 지적대로 아이의 동의도 문제지만 사실 여성의 동의도 문제다. 아이와 다르게 이성을 갖춘 여성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굳이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동의하고 계약할 이유는 여전히 설명이 잘 안 된다. 자연상태를 쇼켓(Gordon Schochet)처럼 가부장들 간의 전쟁상태로 간주하면 더욱 더 설명이 안 된다.<sup>32)</sup>

홉스가 남녀노소, 주종관계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사회관계를 계약관계로 이해한다는 점 외에도, 홉스의 계약론에서 계약(contract)과 강제(coercion)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아울러, 계약의 해석에서 재현과 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홉스는 종이 주인과 계약을 맺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종은, “지금 당장 떨어질 수 있는 죽음의 칼을 피하기 위해”(to avoyd the present stroke of death), “명백한 단어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다른 충분한 의지의 기호”(in expresse words, or by other sufficient signes of the Will)를 통해 주인에게 복종하기로 ‘신의계약’

31) Howard Warrender (1957),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omas Hobbes: His Theory of Obligation*, Oxford: Clarendon Press, p. 124. Gordon J. Schochet (1975), *Patriarchalism in Political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pp. 231-232에서 재인용.

32) 쇼켓(Schochet)은 자연상태의 ‘개인’이 가부장적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자연상태는 가부장들의 전쟁이다. Gordon J. Schochet (1975), *Patriarchalism in Political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pp. 225-243 참조.

(covenanteth)한다(*Leviathan*, p. 141). 그러나 죽음을 피하려고 항복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간주해도 될까? 종이 죽기 무서워 항복하는 것을 두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약이라고 해석하고 싶겠지만 종의 입장에서 그렇까?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되는가? 게다가 홉스는 이러한 상황의 계약이 주인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종을 한 번 정복한 주인은 언제든지 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런 계약이 과연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홉스는 그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해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인의 입장만 고려한 이론이 아닐까? 홉스의 경우 종과 주인의 계약이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진화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지만 햄프턴과 자켓(Jane Jacquette)은 현실 속 계약이란 늘 진행 중인 협상(ongoing negoti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sup>33)</sup> 홉스의 주종 계약과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의 차이를 떠올리게 되는 지점이다.

## 5. 리바이어던에 젠더가 있는가?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의할 점은 홉스가 늘 두 가지 매우 다른 방법으로 구성되는 국가를 말한다는 것이다. 홉스라 하면 우리는 늘 사회계약으로 체결된 국가를 떠올리지만 『리바이어던』 17장에서 홉스는 분명히 두 가지 방식으로 주권(sovaine Power)에 도달(attain)할 수 있다고 말한다. “획득에 의한” 국가(Common-wealth by Acquisition) 있고 “설립에 의한”(Common-wealth by Institution) 국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주권자가 “자연적 힘”(Naturall force, *Leviathan*, p. 121)을 통해 주

33) Jane S. Jacquette (1998), “Contract and Coercion: Power and Gender in *Leviathan*”, *Women Writers and the Early Modern British Political Tradition* (ed. by Hilda L. Sm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7-208.

권을 ‘획득’한다면, 후자의 경우 사람들이 상호합의 하에 특정 주권자에게 주권을 주기로 동시 계약함으로써 한 국가를 ‘수립’한다. 『리바이어던』 20장의 부연을 살펴보자. 전자의 경우에 주권자가 두려워서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면, 후자의 경우 “자신들이 설립한 주권자가 아니라 서로가 두려워서”(fear of one another, and not of him whom they Institute, *Leviathan*, p. 138) 국가를 수립한다. 따라서 계약의 대상이 다르다. “획득에 의한” 국가에서는 시민이 군주에게 복종하겠다고 계약하는 반면 “설립에 의한” 국가에서는 시민이 **군주와 계약을 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군주를 만들기로 하고 그에게 모두 복종하는 조건으로 **서로** 계약한다는 것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다. 따라서, 홉스가 ‘대가족’을 ‘소왕국’에 비유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획득에 의한 국가에 비유한 것이다.

홉스의 분석은 국가가 계약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평화를 위해서는 주권자에게 전제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정당화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무력에 의해 획득된 국가와 다중(多衆, *multitude*)이 사회계약을 통해 함께 설립한 국가가 어떻게 다른가? 사회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계약이 아니라 국가질서를 사유할 때 우리가 전제해야 할 **논리적 조건**이라면, 페이트먼이나 허시만과 같은 반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설립에 의한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는 획득에 의한 국가의 성격을 띤다. 그 이유는 국가가 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은 국가 속에서 늘 법적으로 소외되고 지배되어왔다. 여성의 몸은 가족이나 국가를 위한 도구로 인식된다. 정치와 주권은 여전히 남성의 몫이다. 리바이어던의 젠더는 남성이다.<sup>34)</sup>

2012년에 출간된 『홉스에 대한 페미니스트 해석』(*Feminist Interpretations*

of Thomas Hobbes)에 실린 페이트먼과 스킨너(Quentin Skinner)의 대답에서 스킨너는 “인간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지만 정치적 권위에는 성이 없다”(though man be male and female, authority is not)는 홉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리바이어던에 젠더가 없다고 주장한다. 리바이어던은 다중(multitude)이 계약을 통해 하나의 페르소나(영어로 person, 라틴어로 persona)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서 탄생하게 되는데, 주권자(sovverign)는 사람들 개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르소나를 대표하며 “그 페르소나에는 젠더가 없다”(that person has no gender)는 것이다. 이 페르소나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연합체(assembly)일 수도 있다.<sup>35)</sup> 이 글은 “리바이어던이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국가의 이름이며 그 국가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Leviathan is the name of the state, and the state is neither a man nor a woman)라는 스킨너의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sup>36)</sup> 사회계약에 의해 설립되는 리바이어던은 원칙적으로 젠더와 관련이 없다. 즉, 리바이어던은 사람이 아니라 페르소나다.

하지만 스킨너가 페미니즘을 통해 국가에 젠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

34)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법의 요소』 29장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홉스는 국가의 주권자에게 “인구를 늘랄”(to increase the people) 책무(duty)가 있다고 말한다. 국가의 권력은 인구에 비례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서 주권자는 성교에 관한 법(ordinances concerning copulation)을 제정하여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되는 성교, 일처다부제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홉스는 말한다. 스리달은 이 대목도 홉스에게 우호적인 방법으로 읽으려고 애쓴다. Sreedhar (2012), pp. 272-273 참조.

35) 이 글에서는 국가의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 홉스가 쓴 라틴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국내 홉스 연구에서는 person을 보통 인격(人格)으로 옮기는 반면, 이 글에서는 홉스가 이 단어의 연극적 의미를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페르소나라고 표기한다. Person 개념 관련해서는 Skinner (2018). *From Humanism to Hobb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장 참조.

36) “Hobbes, History, Politics, and Gender: A Conversation with Carole Pateman and Quentin Skinner” (2012), *Feminist Interpretations of Thomas Hobbes* (ed. by Nancy J. Hirschmann and Joanne H. Wright),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 26.

있다고 말할 때 과연 페미니즘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스키너 자신도 인정하듯,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진정한 헌사로 비치지는 않는다(a backhanded way of paying tribute).<sup>37)</sup> 홉스가 왜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이 서로에 대한 신의계약도 복종도 없이, 마치 바로 지금 한 순간에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고 가정하는 것”(Considering men therefore again in the state of nature, without covenants or subjection one to another, as if they were but even now all at once created male and female, *Elements of Law*, p. 126)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홉스가 “바로 지금 한 순간에”(even now all at once created)라는 어색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전통적 논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였다. 홉스는 남성과 여성이 철학적 의미에서 평등하다고 보았고 그 논리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시민에 관하여』에서는 “모든 국가”(all commonwealths, *De Cive*, p. 110)가 아버지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한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for the most part, *Leviathan*, p. 140) 아버지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말한 이유는 홉스가 자신의 철학적 원리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홉스가 자연상태에서의 평등이라는 자신의 철학적 가정에 충실할수록 자연상태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차이는 자발적 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 역설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 가족이다. 홉스는 자연상태라는 가설을 세울 때 가족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남녀의 평등을 주장했다지만 이론적으로는 모권의 이양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홉스의 정치사상에서 여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코부스(Mary Jacobus)는 「이 텍스트에 여성이 있는가?」에서 이 질문(Is there a woman in this text?) 대신 ‘이 여성에 텍스트가 있는가?’(Is there a text

37) Ibid., p. 26.

in this woman?)라고 물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홉스의 텍스트에서 성차, 성교, 생식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직 두 개의 성과 관련 있을 뿐 성차에 대한 본격적인 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의도는 단순히 이러한 논의의 부재 자체 혹은 홉스의 젠더 편향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자코부스가 지적하듯, 성차가 언제까지나 담론화되고 구성된 — 즉, 젠더화된 — 개념이기 때문에 텍스트 안의 다른 개념과 얽혀있을 수밖에 없다. 성차를 빼놓고는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와 국가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리바이어던이라는 페르소나에는 젠더가 없지만 『리바이어던』에는 분명히 젠더라는 텍스트가 있다.

## 참고문헌

### 【자 료】

- 토머스 홉스(2008), 『리바이어던』 전2권, 진석용 역, 파주: 나남.
- Hobbes, Thomas (1999), *The Elements of Law, Natural and Politic* (ed. by J. C. A. Gask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On the Citizen* (ed. by Richard Tuck and Michael Silverthor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Leviathan* (ed. by Richard Tuc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 저】

- 김희강(2018), 「돌봄과 돌봄 없는 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보』 52, 한국정치학회, pp. 203-224.
- 전해정(2013), 「사회복지, 사회정의론, 합리성 —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기초연구 —」, 『법철학연구』 16, 한국법철학회, pp. 81-106.
- 캐럴 페이트만·메어리 린든 웨인리 編(2004), 『페미니즘 정치사상사』, 이남석·이현애 역, 서울: 이후.
- 황정미(2002), 「캐롤 페이트만과 탈(脫)가부장제의 정치적 상상력」, 『여성과 사회』 14, 한국여성연구소, pp. 218-237.
- Abbey, Ruth (2011), *The Return of Feminist Liberalism*,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Brennan, Teresa and Carole Pateman (1979), “‘Mere Auxiliaries to the Commonwealth’: Women and the Origins of Liberalism”, *Political Studies* 27, Blackwell, pp. 183-200.
- Brett, Annabel (2011), *Changes of State: Nature and the Limits of the City in Early Modern Natur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Thomas Hobbes and Late Renaissance Commentary on Aristotle’s *Politics*”, *Hobbes Studies* 23, Brill, pp. 72-102.

- Hampton, Jean (2002), "Feminist Contractarianism", *A Mind of One's Own: Feminist Essays on Reason and Objectivity* (ed. L. M. Anthony and C. E. Witt), Oxford: Westview, pp. 337-368.
- \_\_\_\_\_ (1986), *Hobbes and the Social Contract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ld, Virginia (1987), "Noncontractual Society: A Feminist View", *Science, Morality and Feminist Theory* (ed. by M. P. Hanen and K. Nielson),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3 (suppl. vol.), Taylor & Francis, pp. 111-137.
- Hirschmann, Nancy J. (2016), "Hobbes on the Family", *Oxford Handbook of Hobbes* (ed. by A. P. Martinich and Kinch Hoekst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2-263.
- \_\_\_\_\_ (1992), *Rethinking Obligation: A Feminist Method for Political Theo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oekstra, Kinch (2007), "Hobbes on the Natural Condition of Mankind", *Cambridge Companion to Hobbes's Leviathan* (ed. by Patricia Springb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09-127.
- \_\_\_\_\_ (2004), "The *de facto* Turn in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Leviathan after 350 Years* (ed. by Tom Sorell and Luc Foisneau), Oxford: Clarendon Press, pp. 33-73.
- Jacobus, Mary (1986), "Is There a Woman in This Text?" *Reading Woman: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83-109.
- Jaquette, Jane S. (1998), "Contract and Coercion: Power and Gender in *Leviathan*", *Women Writers and the Early Modern British Political Tradition* (ed. by Hilda L. Sm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0-219.
- Jones, Kathleen (1993), *Compassionate Authority: Democracy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New York: Routledge.
- Macpherson, C. B.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Kay, Ian (2014), "A Half-Centu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C. B. Macpherson and the Twenty-First-Century Prospects of Liberalism",

- Journal of the Canadian Historical Association* 25, *Érudit*, pp. 307-340.
- Nussbaum, Martha (2006),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 Odzuck, Eva (2019), “Not a Woman-Hater,” “No Rapist,” or Even Inventor of “the Sensitive Male”? Feminist Interpretations of Hobbes’s Political Theory and Their Relevance for Hobbes Studies”, *Interpreting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ed. by S. A. Lloy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3-241.
- Okin, Susan Moller (1990), “Feminism, the Individual, and Contract Theory”, *Ethics* 10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658-669.
- \_\_\_\_\_ (1989),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79), *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teman, Carole (1991), “‘God Hath Ordained to Man a Helper’: Hobbes, Patriarchy and Conjugal Right”, *Feminist Interpretations and Political Theory* (ed. by Mary Lyndon Shanley and Carole Patema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 53-73.
- \_\_\_\_\_ (1988),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teman, Carole and Nancy Hirschmann (1992), “Political Obligation, Freedom and Femin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9-188.
- Pateman, Carole and Quentin Skinner (2012), “Hobbes, History, Politics, and Gender” (interviewed by Nancy J. Hirschmann and Joanne H. Wright), *Feminist Interpretations of Thomas Hobbes* (ed. by Nancy J. Hirschmann and Joanne H. Wright),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 18-43.
- Richardson, Janice (2007), “Contemporary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Contract Theory”, *Ratio Juris* 20, Blackwell, pp. 402-423.
- Schochet, Gordon J. (1975), *Patriarchalism in Political Thought: The Authoritarian Family and Political Speculation and Attitudes Especially*

-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Oxford: Basil Blackwell.
- Skinner, Quentin (2018), *From Humanism to Hobb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Visions of Politics, Vol. 3: Hobbes and Civi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The Age of Re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reedhar, Susanne (2012), "Toward a Hobbesian Theory of Sexuality", *Feminist Interpretations of Thomas Hobbes* (ed. by Nancy J. Hirschmann and Joanne H. Wright),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 260-279.
- Stefano, Christine Di (1983), "Masculinity as Ideology in Political Theory: Hobbesian Man Considered",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6, Pergamon, pp. 633-644.
- Tuck, Richard (1979), *Natural Rights Theories: Their Origins and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ender, Howard (1957),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omas Hobbes: His Theory of Obligation*, Oxford: Clarendon Press.

원고 접수일: 2019년 1월 18일

심사 완료일: 2019년 2월 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8일

ABSTRACT

---

## Hobbes, Women, and Contract:

Is There a Woman in Hobbes's Social Contract Theory?

Min, Eun Kyung\*

During the past fifty years, feminist scholars have increasingly engaged with Hobbes's political theory. Although Hobbes's political vision has consistently come under fire for being hyperindividualist, authoritarian, and masculinist, his theory of the state of nature is increasingly seen as offering resources for feminist theory. This article attempts to take stock of the rich and varied feminist response to Hobbes. It offers detailed original readings of passages from Hobbes's *Elements of Nature*, *De Cive*, and *Leviathan* that deal specifically with the difference between mother-right and father-right, the definition of the family, contracts between women and men, and women's role in the commonwealth. The paper proposes that, ultimately, Hobbes evinces a sensitivity toward sex but operates without a sophisticated notion of gender, especially in his theory of the instituted, artificial commonwealth.

---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